

이상(Lee Sang)의 시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와 반문체

이 병 수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시문학사에서 형이상학적 스캔들로 불리는 이상의 시편들에 구사 되는 프랑스어 연구이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시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기호적인 프랑스어, 기하학적이고 회화적인 프랑스어 활용에 대해 분석하고, 아울러 반복적이고 나열적인 단어와 문장의 구성에 응용되는 프랑스어에 대해 분석했다.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의 활용은 비시어적인 기호의 혼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모국어와 시창작의 문법을 거부한 반문체적인 특성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아방가르드적인 시적 재료와 실험적인 창작기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시인에게 프랑스어는 언어의 범주를 벗어난 건축학적이고 회화적인 재료들과 함께 한글의 틀을 거부한 전혀 낯선 표현기법의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시인의 예술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위적인 언어로 응용되고 있다. 이상에게 프랑스어는 분열적이고 열패적인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인은 프랑스어가 갖는 기표와 기의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근대한국문학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실험적인 문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식민지하의 억눌린 자의식을 해방시킨 자유의 언어이며,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문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편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프랑스어, 비시어, 기하학, 나열, 문체, 회화

1. 들어가는 말

본 논고는 한국 시문학사에서 형이상학적 스캔들로 불리는 이상(李箱)의 시편들에 구사되는 프랑스어 연구이다. 이상은 아방가르드적인 삶과 문학으로 조국의 암울한 식민지시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대의 이단아였고, 한국 근현대 문단에 새겨놓은 그의 실험적인 시편들은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한 난해함의 극치로 남아있다. 이상의 시에서 난해함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가 구사한 언어 밖의 기호와 한글 이외의 시어들이 혼재하는데 있다. 그의 시에는 수학적인 부호나 기하학적이고 회화적인 요소들이 난무한다. 또한 그는 한국어와 함께 일본어로 된 다수의 시편들을 썼고, 프랑스어, 영어 등의 외래어를 의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특히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식민지 시대에 일상의 언어였던 일본어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시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를 위시한 외래어의 활용과 비문자적인 기호의 혼용은 전통적인 시창작법을 거부한 반문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근대 한국의 시문학에 이상이 새겨놓은 반문체적인 시어와 문장들은 단순한 모국어의 이탈을 넘어 신문학과 신문체의 창안이며,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 도입은 억눌려 있던 식민지 상황의 조선의 시문학에 서구의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이식시킨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의 시에서 프랑스어 구사는 기존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해체와 거부로 나타나는 반문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프랑스를 위시한 서구의 다다이스트들이 보여주었던 전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이상에게 프랑스어는 분열적이고 열패적인 시인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인으로 하여금 조선이라는 지역주의를 벗어나 세계성을 획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시인은 프랑스어가 갖는 기표와 기의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근대한국문학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실험적이고 난해한 작품들을 그려 놓고 있다.¹⁾ 그렇다면 이상이 보여주는 프랑스어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엇이고, 그 기능은 무엇일까? 시인에게 프랑스어는 정상적인 시어인가, 아니

면 비시어적인 기호인가? 프랑스어로 구성된 단어와 문장은 한글과 한자, 비시어적인 기호들과 어떤 조화를 보여주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시편들 속에서 반문체적으로 적용되는 프랑스어의 특성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II. 기호적인 프랑스어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는 단순한 기호인가, 아니면 올바른 시어인가? 그의 시에서 프랑스어가 보여주는 기호적인 작용은 무엇인가? 「三次角設計圖」, 「鳥瞰圖」, 「建築無限六面角體」를 비롯한 시편들에서 시인은 숫자나 도형과 같은 수학적 부호와 선, 점, 알파벳과 같은 기하학적인 요소를 한글이나 한자, 외래어와 혼용하여 한편의 시화적인 작품을 구성한다. 이상의 시작품들에서 프랑스어는 치밀하게 의도된 시어 중의 하나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프랑스어는 기표(記票) 상으로 하나의 언어이기 전에 낯선 기호처럼 보인다. 또한 뜻을 알 수 없는 의사불통의 프랑스어는 기의(記意) 상으로 독자들에게 문학의 틀을 벗어난 도전적인 언어로 비쳐지고, 아울러 전통적인 시어와 시작법을 이탈한 반문학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프랑스어 구사의 구체적인 예들은 무엇이고, 프랑스어 활용이 가져오는 기표상의 시적 효과는 무엇일까?

『저기가저기지』 『나』 『나의_아_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나. 『너』 『너구나』

『너지』 『너다』 『아니다 너로구나』²⁾.

1) 고은, 『이상 평전』, 서울, 향연사, 2003. p. 118 “그의 다다적 의식 장치를 통한 존재자의 공포, 존재의 불안을 포착하고 있으며 그것의 심각한 풍경을 그가 늘 환기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어쩌면 이상적 연희의 언어에 의한 난해성의 임무일지 모른다. 그는 먼저 그 자신과 함께 난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그 난해성은 그에게 존재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다다적 파산은 사실상 그 자신이 살기 위한 난해성의 형상 도구와 일치하고 있다.”

△은나의AMOUREUSE이다
나는하는수없이올었다
電燈이담배를피웠다
▽은1/W이다.(p.100)

BOITEUX · BOITEUSE(p.110)

憂愁는DICTIONAIRE와같이純白하다.(...)矮小한ORGANE을愛撫하면서
비인페이지를넘기는마음은平和로운文弱이다.(...) 이리구려漢字COMBINATION을
망각하였던若干小量の 腳臟에는(...) 그平和로운食堂또어에는白色透명한
MENSTRUATION이라(...)電話를疲勞하여LIT위에놓고...(p.124)

限定없는電話를疲勞하여LIT위에놓고다시白色呂宋煙을그냥들고있는데
...(p.124)

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

여자는꽃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에순에다告하고 NO.1-500의
어느寺刹인지向하여걸음을재촉하는것이다.(p.136)

여자는大膽하게NU가되었다.(p.142)

視覺의이름을발표하라.

□ 나의 이름.

△ 나의아내의이름(이미오래된過去에있어서나의 AMOUREUSE는이와
같이도

聰明하리라)

視覺의이름의通路는設置하라, 그리고그것에다最大의速度를附與하라.

(...)

蒼空, 秋天, 蒼天, 青天, 長天, 一天, 蒼穹,(...)하는은視覺의이름을發表했
다.(p.165)

2) 이상, 『李箱 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p. 30 이후, 이
상의 시 인용은 ‘이상 시 전집’을 기본으로 본문에 페이지만 표기.

AU MAGASIN DE NOUVEAUTES

(...)

去勢된洋襪(그女人的 이름은 위어즈였다)

(...)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屋上庭園.. 猿猴를홍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p.167)

NO.NO.3.MADAME(p.203)

이상의 시에서 빈번히 구사되는 프랑스어는 독자들에게는 전통적인 시어의 범주를 이탈한 이방인의 언어로 보인다. 그러나 시인에게 프랑스어는 한 글이나 한자와 어울려 한편의 시를 구성하는 시어로써 충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한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을 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된다. 예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활용을 분석해보자.

먼저, 이상의 시편들에서 한글의 범주를 벗어난 프랑스어는 시각적으로 글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호로 보인다. 예문에서 프랑스어는 세모나 네모, 수학적 부호나 알파벳처럼 낯선 기호의 나열로 볼 수 있다. 프랑스어는 한글과 한자 이외에 『, △, ▽, □, 1/W, NO.1-500, NO.No.3 등과 조화를 이루어 문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외래어를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은 프랑스어의 알파벳이 단지 영어표기로 보이거나 낯선 언어의 철자로 읽힌다. 한글이나 한자를 이해하는 독자들이라 해도 프랑스어 표기는 의미의 단절을 불러오는 추상적인 기호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처럼 보이거나, 건축이나 수학에 사용되는 기호로 여겨진다. 독자들에게 “sCANDAL”, “BOITEUX · BOITEUSE”, “NU”, “AMOUREUSE”, “MADAME” 등의 프랑스어는 “『, △, ▽, 1/W, NO.1-500, □”처럼 수학적 기호이거나, 도형과 같은 기하학적 기호로 인식된다.3)

여기서 “sCANDAL”은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글자를 크게 함으로써 “추

3)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108쪽. 김윤식은 이상 문학의 텍스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상의 텍스트는 한국어를 벗어난 기호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작품’이라 했을 때도 그것은 벌써 ‘텍스트성’으로 되어 있었음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초부터 이상 문학은 기호였던 것이다. 일어로 씌어졌을 뿐 아니라 기하학의 언어였다.”

문”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절름발이”로 해석되는 “BOITEUX · BOITEUSE”는 프랑스어 단어가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성(性)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대비시켜 기술하고 있다. “AMOUREUSE”는 사랑하는 “연인”을 프랑스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어 활자의 크기와 형태를 조절하는 표현법은 시인의 심리를 감추거나 강조하기 위한 시각적인 이미지의 활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sCANDAL”과 같은 표현법은 러시아 형식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Apollinaire)가 시도했던 상형시의 기술법을 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⁴⁾ 독자들에게 낯선 언어인 프랑스어가 하나의 기호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시인이 구사하는 비시어적인 기호들의 혼용이다. 이상의 시에는 예문들에 그려지는 『, △, ▽, 1/W, NO.1-500, NO.No.3 이외에도, 「오감도」 연작에 구사되는 숫자, 선, 점, 더하기, 빼기 부호와 같은 수학적 기호들과, 세모, 네모 등의 도형적인 기호, 시의 제목으로 쓰인 “詩第一號”, “詩第二號” 등과 같은 나열식 표기들이 난무한다. 이러한 비시어들과 함께 혼용되어 표현되는 프랑스어 단어들은 독자들에게 언어나기보다는 하나의 기호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예문에서 프랑스어는 그 뜻을 풀기 어려운 암호화된 부호처럼 보인다. 앞뒤의 한글이나 한자, 수학적 부호들과 뒤섞여 표기된 프랑스어 단어는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일종의 비밀스럽고 독자적인 신호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글이나 한자 사이에 뒤섞여 표기되는 프랑스어는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난수표의 부호처럼 보인다. 여기서 “DICTIONNAIRE”, “ORGANE”, “COMBINATION”, “MENSTRUATION”, “LIT” 등의 프랑스어가 구사된 시의 제목은 “LE URINE”(P.123)로 되어 있다.⁵⁾ “오줌”으로 해석되는 시의 제목은 “L’URINE”의 오기로 보이며, 시인은 의도적으로 제목과 시의 내용을 살리기 위해 프랑스어를 적절히 이용한

4) 이승훈, 『李箱 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31쪽 참조. 이상의 시어들은 아폴리네르를 비롯한 다다와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시도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그림으로 구성하는 상형적인 표현기법과 맥을 같이 한다.
고은, 『이상 평전』, 서울, 향연사, 2003. 148쪽 참조. “이상은 쉬르, 다다, 포멀의 기법을 이용하여 현대 정신의 깊이를 찌른 점에서 각기 일방(一方)의 웅(雄)이요, 또 그만큼 공(功)도 있으나 대체로 성공한 실험은 아니었다.”

5) 이상, 『李箱 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123쪽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뜻은 Dictionaire의 오기로 보이는 “사전”, “기관(器官)”, Combinaison의 오기로 보이는 “결합”, “월경”, “침대” 등으로 오줌 누는 행위를 그리기 위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프랑스어는 암호처럼 풀기 어려운 하나의 부호로 받아들여지며, 단지 그 뜻과 형태를 여러모로 유추해볼 뿐이다. 특히 “NO.NO.3.MADAME”은 세 번의 “노”에 “부인”으로 해석되는 ‘마담’이라는 프랑스어를 덧붙여 영어, 숫자, 프랑스어가 혼용되어 하나의 암호화된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쉽게 독해할 수 없고, 단어나 문장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이상시의 난해성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시편마다 차용되고 있는 암호와 같은 비시어들의 활용에서 기인한다.

예문들에서 프랑스어는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보인다. 프랑스어는 문자라기보다는 세모나 네모의 도형, 그리고 수학적 부호들과 함께 쓰인 기하학적 요소로 쓰인다. 특히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이 보기에 프랑스어의 알파벳은 건축상의 도표나 설계도에 사용되는 기하학의 기호들로 여겨질 수 있다. 아울러 고딕체로 구사되는 프랑스어 글자는 시의 지면을 상하, 좌우로 나누고, 지면의 대칭관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오감도」를 비롯한 작품들에 구사되는 선, 점, 숫자 등을 이용하는 것처럼 프랑스어도 하나의 기하학적인 재료로 활용됨을 볼 수 있다.⁶⁾ 이상의 시에는 예문에 그려지는 “『, - △, ▽” 이외에도 “○, +, -, ·, ◇” 등의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빈번히 사용된다. 그러한 기호들과 조화를 이루는 프랑스어 철자는 시각적으로 볼 때 시의 문장들과 지면을 나누고, 대비시키는 등의 기하학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문에서 “AU MAGASIN DE NOUVEAUTES”는 제목으로 쓰인 대문자 고딕체의 큰활자이다. 이 문장은 “새로운 것들의 백화점”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마치 철자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백화점을 구성하는 간판과 같은 기하학의 형태를 보여준다.

좀 더 예를 들면, “BOITEUX · BOITEUSE/ 긴것/ 짧은것/ 열+字/ 그러나 CROSS에는기름이묻어있다/ 隨落/ 不得已한平行/ 物理的으로아팠었다/(以

6) *Ibid.*, 25쪽, 27쪽, 147쪽, 150쪽 참조. 「鳥敢圖」의 “詩第四號”와 「三次角設計圖」에서 시인은 숫자, 선 등의 기하학적인 요소로 지면을 구성하고, 거울에 비춰지는 기호들의 상호 대칭적인 형상들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上平面幾何學)”(p.110)으로 이어지는 시편은 “이상평면기하학”이라는 설명조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에서 “긴것”은 긴 다리, “짧은것”은 짧은 다리를 뜻하고, 두 개의 다리가 만나는 것은 “열+자”로 표현했다. 그러나 처음에 두 다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부득이한 평행”으로 그려진다. 이어서 평행의 두 다리가 “결합”(CROSS)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시인의 나이 二十二年을 “짧고 긴 평행선”으로 기술한 것이고, 숫자의 기표를 교묘하게 배열한 것이다. “평행선”은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성적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다.⁷⁾ 이를 두고, 김주현은 “二十二年”은 이 시를 창작한 시인의 나이를 뜻하고, 장자 설화의 내용을 시인의 상황에 대립시킨 것으로 해석하며, “폐결핵을 앓고 있던 시인이 인간이나 금수는 동일하고, 이들은 서로 죽이고 그 이해는 조음된다는 철학적 인식을 시화한 것으로, 이상이 천천히 죽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장자와 결부하여 쓴 것이다.”⁸⁾라고 설명한다. 즉,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합할 수 없고, 세상과의 조음도 불가한 “부득이한 평행”선 위에 있고, 시인의 육체와 정신은 “생리적으로 아팠었다.”고 그린다. 그리고 단절된 관계에 대해 시인은 입체적인 형상이 아닌 “평면기하학”이라는 단어로 묘사했다. 이 시편에서 제목으로 쓰인 “BOITEUX · BOITEUSE”는 문법적으로 프랑스어 명사가 함의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뜻하는 시어를 응용한 것으로, “평면기하학”이라는 시어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감정과 열정이 넘치는 입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단순하고 무감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낸다. 즉,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의 평행적인 관계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 · 여성을 나타내는 “BOITEUX · BOITEUSE”는 두 개의 다리를 연상케 하는 “二十二”의 숫자와 함께 대칭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기하학적인 요소로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7) 이승훈, 『李箱 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112쪽. 참조. “시의 전반부는 二十二라는 기호의 평면기하학을 일종의 언어유희로 노래하며, 후반부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영원히 불가능함을 노래한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대응됨으로써 독특한 시적 다의성(ambiguity)을 생산한다.”

8) 김주현, 『실험과 해체』, 서울, 지식산업사, 2014, 360쪽.

9) 김승희,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서울, 문학사상사, 1996. 400

한편,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언어로 읽히기보다는 입체적인 그림을 구성하는 회화적 요소로 보인다. 뜻을 모르는 독자에게 프랑스어는 한글 이외의 요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그림과 같은 형상으로 인식된다. 기하학적인 대문자로 표기된 고딕체의 프랑스어 표기는 시인의 직업이 건축의 설계사이고, 학창시절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다른 외래어 기술양식도 필기체보다는 인쇄체의 고딕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딕체의 큰 활자가 갖는 회화적 요소를 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묻어있었다.”(p.110), “여자는혼자望遠鏡으로SOS를듣는다.”(p.136), “I WED A TOY BRIDE”(p.201), “HALLOO”(p.203), “CREAM LEBRA의 秘密을듣다”(p.237)등의 문장은 영어로 쓰인 예문이다.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표기도 인쇄체 대문자로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아울러 「三次角設計圖」, 「鳥瞰圖」를 비롯한 이상의 시편들에는 글자나 기호들을 이용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구성한 작품을 쉽게 볼 수 있다. 거울에 비쳐진 자아의 모습을 숫자로 표현한 「오감도」의 “시제4호”(p.25), 화살표와 선으로 그린 도형형식의 “시제5호”(p.27), 숫자와 점으로 구성된 「삼차각설계도」의 “線에關한覺書”(p.147) 등의 시편들은 언어라기보다는 비시어들로 꾸며진 추상화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보여준다.¹⁰⁾

이어서 프랑스어와 도형 등의 기하학적인 요소들은 서로 상호적으로 융해되어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된다. 위의 예문에 표기된 “△은 나의 AMOUREUSE이다.”라는 문장은 “破片의 景致”(p.100), “神經質的으로飽滿한三角形”(p.121) 등에서도 구사되고, “△은 나의 연인이다”로 해석된다. 시

쪽 참조. “숫자 기호나 기하학적 기호, 그래픽 디자인 사용, 그리고 활자들의 다양한 배치나 의성어 활용 등은 초월적 자아의 수호자인 통사를 약화시키고 문법적 규범을 해체하려는 기호계적 반란이면서 동시에 추상적 이성으로 시각의 체계를 세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자연적 현상위에 군림하는 기하학의 우선성’을 세운 유클리드적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숫자적 기호들을 자신이 저항하고 해체해야 할 상징계적 대상으로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 10) 「鳥瞰圖」는 “詩第一號”에서 “詩第十五號까지 계속되고, 「三次角設計圖」에서는 “線에關한覺書 1”에서 “線에關한覺書 7”까지 계속된다. 특히 「오감도」의 “시제 4호”와 「삼차각설계도」의 “선에관한각서 1”은 수학적 기호인 “1 2 3 4 5 6 7 8 9 0” 등의 아라비아 숫자와 점을 이용한 나열식 표현으로 시의 지면을 구성.

편 「線에關한覺書」(p.164)에 구사되는 “AMOUREUSE”의 이미지는 “아내”를 뜻하며, 그 아내는 “△”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 말하자면 “아내=AMOUREUSE=△”의 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아내와 시인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감의 도구는 “시선”이다. 시인은 시선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과 육체적, 정신적인 교감을 이룬다. 시선은 아내와 교감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고, 교감은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선(線)”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제목으로 쓰인 “선에관한각서”는 시선이 그리는 “선”(線)의 이음 형상이고, “視覺”으로 연결되는 회로이며, 그 선을 통해 시인과 아내간의 상호교감이 빠른 속도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이 시편에서 “□, △”는 남녀를 의미하고, 시인과 연인, 시인과 아내에 비유된다. 시인은 “연인”이나 “아내”를 한글대신에 기하학적인 도형이나 프랑스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시각을 발표하라”, “시각의이름의통로는설치하라”, “그것에최대의속도를부여하라” 등의 문장은 남녀 간에 육체적, 정신적 소통을 이루고, 관계를 맺기 위한 신속하고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시선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시선은 하늘의 형상인 “蒼空, 秋天, 蒼天, 青天, 長天, 一天, 蒼穹” 등으로 확장되어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선”(線)을 그린다. 시각은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자연현상을 인지하며, 세상과의 조응을 그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아울러 하늘로 솟아나는 시각은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의 공간으로 확장시켜나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그린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어령은 이상(李箱)의 시에서 “시각의 이름”은 무한을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틀이며, 그 한계성을 벗어날 때 인간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시각의 이름을 잊어버리라고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며 시각이 갖는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그리고, 이 시편에서 시각의 기능은 공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시선에 비쳐지는 사물의 외적 현상과 내적 질감, 거리감, 속도감 등에 대한 투시와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권영민은 시인의 「삼차각설계도」의 연작에 대해, “여기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발견이다. 그는 본다는 것이 단순히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적 형상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과 함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관

11) 이어령, 『李箱 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166쪽 참조.

찰자로서의 주체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개의 장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이상은 사물에 대한 물질적 감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물의 전체적인 형태나 중량감, 윤곽, 색채와 그 속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특이한 시선과 각도를 찾아내고자 한다.”¹²⁾고 설명한다. 시의 제목으로 쓰인 “線에關한覺書”에서 “선”은 시각에 투영되는 사물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시인이 활용하는 “□, △”과 같은 기하학의 요소와 “AMOUREUSE” 등의 프랑스어 혼용은 독자들에게 비밀스러운 뜻을 숨기고 있는 암호와 같은 시의 요소들로 여겨지고, 이상의 시편들이 상형적인 이미지들로 비쳐지게 하는 중요한 시어들이다.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이상의 시에서 정상적인 한글이나 한자가 아닌 프랑스어나 도형 등의 혼용은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을 연상케 하는 시인만의 고유한 회화적인 시어들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러한 회화적 이미지는 미술과 건축의 재료들을 시에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도시적이고, 지적인 예술성을 시화(詩畫)로 형상화 시킨 것이다. 고은의 말을 빌면, “그의 소년기에 일종의 코즈모폴리턴으로서의 회화나 그의 청년기에 마찬가지로 시각의 입체 조건을 기본으로 하는 건축에 길들여졌으며, 그의 신분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울 서민 계층의 상업 사회나 그런 계층을 이루고 있는 가족에 뿌리박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국어 및 언어에 대한 실존적 체험이나 절제, 개발의 재능 없이 근대 도시의 추상어를 차별 없이 습득해서 그것을 그 자신의 선함에 도착시킨 것이다.”¹³⁾ 즉, 이상이 구사하는 프랑스어나 도형 같은 시어는 건축설계공부를 했던 시인이 그려내는 추상적이고 입체적인 회화의 재료들로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프랑스어와 나열의 문장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병렬적 문장을 이끄는 중요한 시어로 작용한다. 여러 철자가 나열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프랑스어 표기는 한글의

12)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서울, 태학사, 2014. 99쪽.

13) 고은, 『이상 평전』, 서울, 향연사, 2003. 27쪽.

글자와 단어들을 병렬의 형태로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작품들 속에서 프랑스어는 한글, 한자, 기호 등과 혼용되어 문법을 이탈한 자유로운 형식의 문장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프랑스어 표현이 가져 오는 나열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프랑스어 표기의 알파벳과 한글의 조화이다. 프랑스어의 철자는 시각적으로 한글의 글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렬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프랑스어는 여러 개의 철자가 나열되어 단어와 뜻을 구성한다. 나열형의 외래어는 자모음이 합쳐져 글자를 이루고, 글자가 모여 단어와 뜻을 구성하는 한글의 표기를 시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나열된 이미지로 변형시키고 있다. 프랑스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독자들은 무엇 때문에 시인이 이러한 외래어를 구사했는지 의문을 갖고 나열된 문장들을 따라 읽으며, 띄어쓰기를 무시한 한글표기들이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들과 혼용되어 병렬식 문장을 구성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예문에서 “△은나의AMOUREUSE이다”, “憂愁는DICTIONAIRE와같이純白하다”, “MENSTRUATION이라”, “여자는大膽하게NU가되었다” 등의 문장에서 프랑스어의 철자 하나는 문장을 구성하는 한자와 한글의 글자 하나와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프랑스어는 철자가 모여 단어를 이루는데 반해, 한글의 자모음은 나열형이 아니라 입체적인 형태로 글자를 이루고, 그 글자가 단어를 이룬다. 그러나 독자에게 프랑스어 철자는 한글의 글자 하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작용하여 나열식의 문장을 만든다.

두 번째로, 프랑스어 표기는 한글로 된 단어와 문장의 반복적인 표현과 융해된다. 이상의 시에서 병렬적 지면을 구성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글쓰기 규범을 벗어난 같은 단어나 문장들의 무수한 반복에 기인한다. 나열식 글쓰기는 문법을 무시한 것으로, 쉼표, 마침표, 띄어쓰기 등의 문장 부호들과 글쓰기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반복적 표기법은 전통적인 시각법인 울격, 행과 연의 구분 등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방임식의 글쓰기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오감도」의 “시제1호”에서는 “第 1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p.17)라는 문장이 숫자만 바뀌어 제13번까지 반복된다. 그리고 “시제2호”의 “나의아버지가나의결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p.21), “시제3호”의 “싸움하는사람은썩썩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었기도

하니까(...)"(p.23) 등에서도 같은 단어와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 다른 예들로, “『저기가저기지』 『나』 『나의_아_너와나』 / 『나』 / sCANDAL 이라는것은무엇이나. 『너』 『너구나』 / 『너지』 『너다』 『아니다 너로구나』”(p.30), “1 2 3 4 5 6 7 8 9 0”(p.147) 형식의 표기들은 한글, 기호, 숫자들이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면을 나열식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한글이나 기호의 반복적인 형태는 철자들을 열거하여 단어와 문장을 이루는 프랑스어 표기처럼 나열적인 형식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이상시의 열거방식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프랑스어 단어의 한글식 표기와 혼용된다. “여자는콧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이션에다告하고 NO.1-500의”, “去勢된洋襪(그女人의이름은워어즈였다)/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屋上庭園. 猿猴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 등의 문장에 구사되고 있는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는 발음 되는대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에레베이션”은 프랑스어 “élévation”, “마르세이유”는 “Marseille”, “마드무아젤”은 “Mademoiselle”의 표기로, 그 뜻은 각각 “상승”, “마르세이”라는 도시이름, “아가씨”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어가 갖는 뜻을 살리기 위해 시인이 의도적으로 차용한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현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쓰인 대로 읽을 뿐, 뜻보다는 시각적으로 나열된 이해불가의 낯선 글자들에 의문을 갖고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된다.

한편,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시각상의 나열뿐만 아니라 청각상의 다양한 효과를 불러온다. 프랑스어의 발음은 다른 요소들과 어떤 용해를 이루고 있을까?

첫째, 나열형태로 나타나는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는 발음상의 다양한 조화를 보여준다. “아아르·카아보네는橄欖山을산채로라攝해갔다.”(p.118). “太陽은理由도없이사보타아지를恣行하고있는 것은”(p.124), “여자는오오로라를본다. 텍크의勾欄은北極星의甘味로움을본다”(p.136), “出奔한 안해의歸家를 알리는 『페리오드』의 大團圓이었다.”(p.213), “聖제바스티앙과같이 아름다운동생·로오자룩셈볼크의木像을닮은막내누이”(p.223), “네愛人을불러쭈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p.232) 등의 예문처럼 프랑스어의 한글식 표기는 매우 빈번하게 구사된다. 여기서 인용된 한글식 프랑스어는 각각 “아아르·카아보네”는 “Al Capone”라는 미국 갱의 영어 이름을 프랑스어식으

로 읽은 것이고, “사보타아지”는 “Sabotage”로 작업장의 파업, “오오로라”는 “Aurora”로 극광(極光), “페리오드」는 “Période”로 기간이나 년대, “聖세바스티앙”은 “Sebastianus”로 로마의 성자, “로오자룩셈볼크”는 “Rosa Luxemburg”로 독일의 여자 공산주의자, “아드레스”는 “Address”로 주소를 받음되는 대로 표현한 것이다. 예문의 문장들 속에서 프랑스어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다의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응용한 것으로 보이며, 한글과 조화를 이루어 이상시의 단어와 문장들을 병렬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아르·카아보네”, “사보타아지”, “오오로라”, “아드레스”는 프랑스어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즉, 단어를 이루는 프랑스어 철자들은 뜻과 발음상에 있어 한글표기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나열식의 표현으로 유추된다.

둘째, 프랑스어 발음의 한글식 표현은 일본어나 영어 등의 다른 외래어 표기에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초콜레이트는黑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p.135), “여자는트렁크속에흙탕투성이가된즈로오스와함께엎드려져운다.(...)/사루마 다바에입지않은펜킨은水腫이다”(p.143), “四角이난케-스가겉기시작이다(소름끼치는일이다)/라지에-타의近傍에서昇天하는군빠이.”(p.168), “가라사대 사팔득·이라고오늘밤은·조각된이타리아겨울조각·앙고라의수실은드렛슴마·마음의켄타아키이·버리그늘소아지처럼흩어진곳이오면”(p.203) 등의 예문은 영어 등의 한글식 표현이 가져오는 나열형태의 문장들이다. 여기서 “사아벨”은 프랑스어 “Sabre”로 검, 군도(軍刀)를 의미하고, “펜킨”은 펜권새를, “케-스”는 영어 단어로 네모난 상자인 자동차가 움직이는 형상이다. “사루마다”, “가라사대” 등은 일본어의 한글식 표현이다. 이러한 나열식의 한글표현은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들의 철자를 늘어놓는 방식의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상의 시편들에서 프랑스어 음소는 한글과 조화를 이루어 발음상의 자연스러운 이음 현상을 보여준다. “△은나의AMOUREUSE이다”라는 문장에서 프랑스어는 “아무르즈”로 발음되고, 그 뒤로 따라오는 한글과 함께 “아무르즈이다”로 연결된다.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는 “스칸달이라는 것”으로, “DICTIONNAIRE와같이”는 “딕쇼네르와 같이”로, “LIT위에놓고”는 “리위에 놓고”로, “ORGANE을”은 “오르간을”으로, “POUDRE VERTUEUSE가”는 “뿌드르 베르티유즈가”로, “NU가되었다”에서는 “뉘”

로 연결되어 음의 이음현상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시인의 시작품에 구사되는 프랑스어표기는 발음상에 상에 있어 한글표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글식의 프랑스어 표기에도 이러한 발음상의 이음은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여자는콧노래와같은ADIEU를地圖의에레베에슌에다告하고”, “초콜레이트는黑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 “마르세이유의봄을解纜한코티의香水의마지한東洋의가을” 등의 예문에서 단어들은 각각 “아듀를”, “에레베 이슌에다”, “사아벨은”, “마르세이유의봄을”이라는 발음상의 이음형태로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한글이나 다른 시어들과 조화를 이루어 시각과 청각상의 병렬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발음상의 이음과 나열은 프랑스어 이외의 외래어 단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는어느나라의데드마스크다.”(p.94), “六體에對한處分을센터멘탈리즘하였다.”(p.96), “▽의슬립퍼어는菓子和같지아니하다”(p.100), “카아보네가프렛상으로보내어준프록·코오트를基督은最後까지”(p.120), “그런데나는캐라반이라고./ 그런데나는캐라반이라고.”(p.121), “或은 엘리엘리 라마싸박다니/(...)/ 하이안天使의펜네임은聖피-타-라고”(p.225) 등의 예문은 영어의 발음을 한글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발음상의 이음은 이상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병렬적 단어와 문장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넷째, 이상의 시에서 나열형의 문장은 숫자, 도형, 암호와 같은 비시어들과 반 문법적인 문장의 혼용으로 구성된다. “第 1의兒孩가무섭다고그러오./ 第2의兒孩가무섭다고그러오./ 第3의兒孩가무섭다고그러오./(...) 第13의兒孩가무섭다고그러오.”(p.17). “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 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p.21) “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던지하였으면그만이다.”(p.23), “꽃이보이지않는다. 꽃이香氣롭다. 香氣가滿開한다. (...) 꽃이또香氣롭다. 보이지도않는꽃이—보이지도않는꽃이.”(p.80) “종이로만든배암이종이로만든배암이라고하면/ ▽은배암이다/ ▽은춤을추었다/ ▽의웃음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우스웠다”(p.103), “蒼空, 秋天, 蒼天, 青天, 長天, 一天, 蒼穹”(p.165) 예문은 수학적인 숫자와 기하학적인 도형의 나열을 보여주고, 띄어쓰기나, 쉼표, 마침표 등의 사용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반문법적인 단어와 문장의 구성을 보여준다. 처음 시작

한 단어와 기호들이 시의 말미까지 계속되거나, 시작과 끝이 같은 문장으로 작품이 구성 되는 것은 시각과 청각상에 있어서 병렬적인 특성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반복적인 단어와 문장의 대구적인 형식은 시각상의 좌우대칭과 전후대칭 등의 효과를 불러온다. 여기서 우리는 외래어들과 기호는 한글이나 한자와 조화를 이루며 시청각 상의 나열적 구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프랑스어가 갖는 이국적인 표기와 발음은 우리말과 융해되어 나열적인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에 대해 권영민은 「오감도」를 비롯한 이상의 시편들은 “언어의 음성적 요소를 시각화하기 위해 그 기호적 속성과 시각적 요소를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구성하였다.”¹⁴⁾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나열형태의 표기는 어떤 의도로 구성되는 것일까? 먼저, 반복과 나열형태의 구성은 시인 자신의 심리상태를 숨겨거나 반대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시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불안과 초조, 열패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전통적인 언어와 기법을 거부하며 자유로운 예술정신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의 식민지 상황이 가져오는 억눌린 자의식과 저항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간주 된다. 이러한 비시어적인 요소들의 나열식 작품구성에 대해 독자들은 의미파악에 앞서 형식을 파괴한 반규범적인 표현기법에 주목하게 된다. 나열식의 표기는 정형적인 운율이나 행과 연의 배치와는 다른 자유롭고 방임적인 글쓰기의 형태이다. 이상의 시에서 이런 반복적이고 나열 형식의 글쓰기는 프랑스의 아폴리네르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즐겨 쓰던 자동기법적인 방식과 유사하게 그려지고,¹⁵⁾ 그것은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활자가 갖는 나열형의 이미지를 우리말에 적용시켜 표현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어령은 “第1號, 第2號” 등으로 제목을 단 것은 쉬르레알

14)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서울, 태학사, 2014. 315쪽.

15) Guillaume Apollinaire, *Oeuvres Poème à Lou*, Gallimard, Paris, 1969, “Il y a des petits ponts épants/ Il y a mon coeur qui bat pour toi/ Il y une femme triste sur la route/(...)// Il y a toute la vie/ Je t'adore”(p.144) “Je voudrais mourir un jour que tu m'aimes/ Je voudrais être beau pour que tu m'aimes/(...)/Je voudrais te prendre pour que tu m'aimes”(p.170) 아폴리네르와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자동기술적으로 보이는 반복과 중첩의 표현기법을 빈번히 구사.

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미 있는 제목을 달면 독자가 어떤 선입관념을 가져, 시적인 다양한 의미를 한정시켜 그 뜻을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한 표제를 단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시의 총체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¹⁶⁾ 그리고 모국어의 범주를 벗어난 외래어나 기호 등의 이해 불가한 시어들의 반문체적인 구사는 일종의 언어의 유희이며, 그것은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서구의 근대적 시인들이 보여주었던 언어의 찬란함으로 볼 수 있다.¹⁷⁾

IV. 나가는 말

“△은나의AMOUREUSE이다”, 이 문장은 이상시의 반문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예문 중에 하나다. 기하학적 도형인 “△”와 외래어인 프랑스어가 한글과 조화를 이루어 문장을 구성하고, 띄어쓰기를 무시한 반 문법적인 표기이다. 프랑스어 “AMOUREUSE”는 “아무르즈”로 발음되고, 연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아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문장은 “△”와 “AMOUREUSE”의 철자가 한글의 글자와 융해되어 시청각적으로 나열의 형태를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삼각형은나의아무르즈이다”로 발음된다. 이 문장은 비시어적인 기호와 외래어인 프랑스어의 특성을 응용하여 모국어가 갖는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인이 나타내고자하는 뜻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의 산물이다. 그러나 외래어를 모르고, 특히 프랑스어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16) 이어령, 『李箱 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역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18쪽 참조.

17) Roland Barthes,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Paris, Editions du seuil, 1972. p. 40 “이것이 바로 근대적 시인들, 자신들의 의도를 끝까지 말고 가는 그 시인들의 언어이다. 그들은 시를 정신적인 실천, 영혼의 상태 혹은 입장 제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꿈꾸어진 언어의 찬란함과 신선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시인들에게는 시적 감정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역시 쓸데없다.” “Tel est du moins le langage des poètes modernes qui vont jusqu'au bout de leur dessein et assument la Poésie, non comme un exercice spirituel, un état d'âme ou une mise en position, mais comme la splendeur et la fraîcheur d'un langage rêve. Pour ces poètes-là, il est aussi vain de parler d'écriture que de sentiment poétique.”

이와 같은 단어와 문장들의 구성은 모국어의 틀을 벗어나고, 글쓰기의 규칙을 이탈한 반문체적인 표현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의 시편들에 빈번하게 구사되는 프랑스어는 예문과 같이 반문체적인 문장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시에서 반문체적인 시편들을 구성하는 프랑스어는 어떤 특성으로 구현되고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구해볼 수 있었다. 이상의 시에서 프랑스어는 기호, 기하학, 암호화된 시어로 작용하고, 알파벳이 보여주는 철자상의 특징과 반복의 문장들은 회회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어는 추상적이고 입체적인 시화(詩畵)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한글이나 한자와 조화를 이루어 병렬적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중요 요소로 응용된다. 또한 빈번하게 구사되는 한글식 표현의 프랑스어는 시인에게 모국어와 같은 시어로서의 위상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가 갖는 철자와 발음의 특성은 반복적이고 나열적인 문장들 속에서 시칭각상의 병렬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어의 특성은 이상의 시편들 속에 나타나는 반문체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시어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 그리고 반문체적인 단어와 문장들은 이상의 시편들이 보여주는 난해함의 근간이다.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아방가르드적인 시작품들은 혼종의 언어가 난무하고, 언어의 범주와 문장의 틀을 벗어난 반문체적인 시편들이 대부분이다. 그의 난해한 시편들은 비시어적이고 반문법적인 표현들로 인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난해함을 야기하는 반문체적인 시편들의 시어들 속에서 프랑스어 단어들은 기표와 기의적인 측면에서 이상시의 실험적인 중심 시어로 차용되고 있다. 시인에게 프랑스어의 구사는 조선이라는 지역에 갇혀 있던 한계성을 극복하고, 서구의 다다와 슈트레알리즘을 넘어 시인 고유의 시어와 전위적인 표현기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반문체적인 시편들은 전근대적인 사고와 표현기법에 머물러 있던 한국 시문학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변종의 언어유희이며, 억눌린 자의식에 갇혀 있던 식민지하의 한국 근대문학을 해방시킨 자유의식의 총화이다. 그리고 이상의 시편에 구사되는 프랑스어는 다다이스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인의 작품과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 참고문헌

-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서울, 태학사, 2014.
- 권영민, 『이상 문학연구 60년』, 서울, 문학과 사상사, 1998.
- 고 은, 『이상 평전』, 서울, 향연사, 2003.
- 김윤식, 『이상의 글쓰기론』, 서울, 역락, 2010.
- 김윤식, 『이상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김옥순, 『이상 문학과 은유』, 서울, 채륜, 2010
- 김주현, 『실험과 해체』, 서울, 지식산업사, 2014.
-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역락, 2006.
- 이 상, 『李箱문학전집 1-詩』,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이 상, 『李箱문학전집 2-소설』,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이 상, 『李箱문학전집 3-수필』, 김윤식 엮음, 서울, 문학사상사, 1989.
- 이 상, 『李箱문학전집 4-연구논문』, 김윤식 편저, 서울, 문학사상사, 1996.
- 이상문학회 편, 『이상시 작품론』, 서울, 역락, 2009.
- 이 상, 『이상 소설 전집』, 권영민 편역, 서울, 민음사, 2012.
- 이승훈, 『이상』, 건국대 출판부, 서울, 1997.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서울, 나무이야기, 2009.
- André Bret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Paris, Gallimard, 1983.
- Claude Abastado, *Introduction au surréalisme*, Paris, Bordas, 1986.
- Ferdinand Alquié, *Philosophie du Surréalisme*, Paris, Flammarion champs, 1977.
-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aris, PUF, 1989.
- Julia Kristeva,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 Marcel Raymond,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Paris, Libraire José Corti, 1985.
- Maurice Nadeau, *Histoire du surréalisme*, Paris, Seuil, 1970.
- Philippe Audoin, *Les surréalistes*, Paris, Seuil, 1995.
- Roland Barthes,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Paris, Editions du seuil, 1972.
- _____, *Essais critiques*, Paris, Editions du seuil, 1981.

❖ ABSTRACT

A Command of French and anti-style used in Lee Sang's poetic work

Lee, Byung Soo

This paper is a study on French of Lee Sang's poems called metaphysical scandals in Korean poetry. Is poetic language he used a common poetic word or a non-poetic word in French? What kind of harmony do words and sentences composed of French have with Korean, Chinese character, and non-poetic word? Based on these questions, we analyzed a command of French, that is symbolic, geometrical, and pictorial French as well as repetitive and parallel constitution used in form of words and sentences.

In Lee Sang's poems, as a result, the use of French is seen as a mixture of non-poetic word. It shows characteristics that reject traditional native language and the creation of poetry. In his poems, French is also an important factor of avant-garde poetic material and experimental creation technique. In his poems, French is used as a special tool to express internal conflicts of the poet. Lee Sang showed experimental style that could not be found in modern Korean literature by using signifier and signified that french language has.

Key Words : French, anti-poetic diction, geometric, enumerate, style, picture

■ 논문접수일 : 2017. 11. 10

■ 심사완료일 : 2017. 11. 30

■ 게재확정일 : 2017. 12. 1